

#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

## - 복음으로 여는 에베소서 -

창세기 2:16-17, 에베소서 2:1-9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새는 하늘을 날도록 만드시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승리하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며,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육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타락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허물’과 ‘죄’라는 단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허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 ‘지정된 길에서 이탈함’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즉, ‘악을 행하는 것’이다. ‘죄’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표적을 맞추지 못함’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즉,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허물’과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같은 의미이다. 이 ‘허물’과 ‘죄’안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범죄를 짓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죄라고 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원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원죄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질문을 한다. 이것은 논쟁 밖에 되지 않는다.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선악과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드릴 수 없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잣대로 재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뿌리가 원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와서 여러분을 찌르기도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예배드릴 수 없고, 교회를 다닐 수 없고, 지속할 수 없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음이 올 줄 알고 에덴에서 쫓겨날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동산으로 가면 선악과를 따먹겠는가, 안 따먹겠는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와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이다. 백 번 돌아가도 백 번 따먹을 것이다. 우리는 자율성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도 만들어두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인정만 하면 된다. 그것을 깊이 감사하면 조금씩 거듭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복음과 거듭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미션을 주셨다. 그런데 왜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한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노예생활, 포로생활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다. 이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때 이 땅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7명의 램네티가 살았던 언약의 여정, 승리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미션을 주고 있다.

에베소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에베소교회의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대부분 그 교회들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베소서도 이렇게 개별교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란노서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과 제자들에게 더욱 깊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설명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깊이 보면 예정론, 구원론, 죄론, 마귀론, 교회론, 기독교윤리학 등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도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하다보면 깊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 꼭 오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복음과 신학적인 깊은 내용까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루살렘교회의 질서를 따랐다. 목회자에게 항상 알리고 보고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이다.

### 1. 첫 번째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알려주시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최고의 은혜의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의 특권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말씀들을 보겠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건물을 짓기 전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땅, 위치를 선택하고 작정을 하고 구상한다. 그리고 설계를 하고 전기, 미장, 도색 등 섭의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감독하고 조금씩 실현해나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성해나간다. 건물을 지을 때도 작정하고 설계하는 사람에게 이미 그림이 다 있는 것이다. 허물며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모르시겠는가. 이 모든 것이 예정에 속해있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다. 전도캠프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해두신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를 찾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논리로 설득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정론은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전도의 관점으로 볼 때, 또 전도를 해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준비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려면 힘들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인도 끝까지 받아야 한다. 그래서 300, 30, 3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절대주권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과 하늘보좌의 권세로 237 현장에서 빛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2)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확실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혹시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과 저

주와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자백해야 한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이렇게 넘어졌어요, 부끄러워요' 고백하면 된다. 흑암에 있으면 내 잘못도 죄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빛이 임해야 한다.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3) 세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들의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이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 네 번째로 불신자 상태에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 주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5)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거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 2. 두 번째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대주제는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소명받은 것이다. 이제 복음전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어떤 실수나 죄를 짓더라도, 비윤리적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받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나온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사랑,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못해서는 되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구원의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목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장에서 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1) 4장 2절에서 3절이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위드, 임마누엘, 윈니스'를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다. 분열의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해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 4장 4절에서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3)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완전복음이고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 절대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참사랑 RUTC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램넛들은 노예생활, 포로생활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적까지 하나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시 4장 15절 중간에서 말씀하고 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은 미션결과 제자양육의 절대목표이다. 4장 16절에서는 절대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알면 스스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오직(Only), 유일성(Uniqueness), 재창조(Recreation)의 시스템인 OURS이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가대, 방송부, 중

고등부, 태영이부 모든 각 부서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오직 예수되면 그 안에서 성장되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목표인 것이다.

(4)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옛 틀을 벗어 버리고 새 틀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새 것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율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모습이다. 또한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실천리스트를 말씀해주고 있다. 4장 25절이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6절에서 27절은 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4장 29절은 말에 대한 내용이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장 31절에서 32절이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부끄러움, 추함, 더러운, 사악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들은 모두 말에 대한 말씀이다.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5장 11절이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 5장 22절에서 6장 4절은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부부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그 중심단어는 순종과 사랑이다. 6장 5절에서 9절은 직장생활에 대한 내용이다. 직원들은 눈가림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상전들은 위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끝내고 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언약의 자녀라는 것이다. 절대 변함없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전해야 할 참된 복음은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절대주권의 복음이다.

3. Dream, 꿈이다. 에베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기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위해 조금만 집중해도 4차 산업, 5차 산업의 미래의 그림이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내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할 말씀을 몇 가지라도 정하고 실현해보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70 현장에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 안에서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지 기준, 수준, 표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따라 살아가다가 이 말씀따라 살아가다가 전 세계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현장을 살리며 모든 지역에 복음가진 후대를 키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